

스피치와 합창으로 역사 되새긴다

‘2019 제2회 키즈스피치FM’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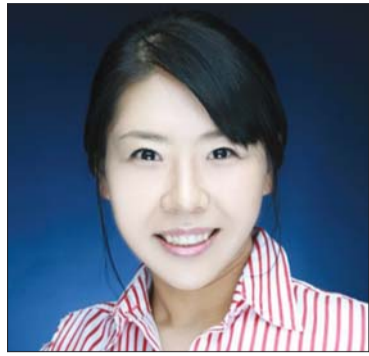
어린이들의 스피치와 합창으로 꾸며지는 이색적인 공연 ‘2019 제2회키즈스피치FM’이 오는 12일 오후 4시 해운대 디자인센터이벤트홀에서 열린다.

부산에서 방송과 강연 등으로 활동 중인 김경희(41·방송명 김초희/키즈스피치FM 대표) 씨가 기획한 이 공연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공연은 가수 최영준이 불러 어린이들의 역사인식을 고취시킨 것으로 유명한 노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테마로 하고 있다.

단군을 시작으로 광개토태왕, 김유신 장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김구 등 노래에 등장하는 역사 인물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어린이들이 다양한 스피치형식과 합창으로 표현하게 된다.

김 대표는 “일정한 틀에 맞춘 교과서적인 대본 낭독 형식에서 탈피해 각자의 개성에 맞춘 원고로 개작하는 과정을 거쳐 뉴스, MC, 콩트, 리포터, 자유스피치 등 스피치기법으로 표현하며 합창을 통



기획을 맡은 김경희 대표. /키즈스피치 FM

해 객석과 호흡하는 공연으로 꾸몄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60여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등장해 2시간에 걸쳐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짚어보게 된다.

김 대표는 부산MBC와 KBS부산방송을 거쳐 현재 TBN 부산교통방송에서 방송진행자로 활약하며 기업교육전문 분야카데미 대표로 재임 중이다. 또 부산인재개발원, 경남인재개발원, 대구공무원교육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경남여성개발원 등에 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

경상남도 어선사고 막는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경상남도가 어선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과 사고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해 어선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맡길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을 새로 채용해 운용하게 될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어선, 낚시어선 및 관련 사업장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며 선체, 기관, 안전설비의 적정성 지도·감독하며 결합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어

선사고 예방, 수습,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영권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선 및 낚시어선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운영한다”며, “이를 통해 안전 점검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사고수습으로 도내 어선·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최인락 기자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4단계로 확대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재 3단계로 시행 중인 품질검수를 4단계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아파트 공사초기 공정률 25%내외, 골조 5층 시공 전·후에서 시행하는 ‘골조공사 중’ 단계를 신설해 도가 직접 검수하고, 도에서 실시한 사후점검은 시 군에서 직접 확인 후 조치하도록 검수방식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품질검수는 ▲공정률 50~65%에서 시·군에서 진행되는 ‘골조완료 후’ 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 공

률 95~99%에서 도에서 진행되는 ‘사용검사 전’ 단계 ▲준공 후 3개월 내에 도에서 품질검수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점검’ 단계 등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골조단계부터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과정을 거치면 아파트 품질이 상당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86개 아파트 단지에서 ‘골조공사 중’ 단계 품질검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3월, 천사대교... 4월, 목포 해상케이블카...

서남권 ‘섬 해양관광지’로 부상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등 관광 수용태세도 대폭 강화 순환버스 섬·해양 특화 운영



신안군 압해-암태간을 연결하는 총연장 7.22km 길이의 해상교량. 신안군은 오는 27일 군 지명위원회를 열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상교량의 명칭 ‘천사대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라남도는 오는 3월 신안 천사대교, 4월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섬·해양 관광 인프라 확충과 무안국제공항 국제 정기노선 증가 등 관광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서남권을 섬·해양 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대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과 관광협의체를 구성,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서남권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현재 개통을 앞둔 신안 천사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자은도 해양복합시설인 신안아일랜드, 안좌도 테마공원, 천사대교 명품경관조명 설치를 비롯해 홍보관 겸 특산물 판매장인 1004타워, 칠산대교(무안 해제~영광) 건립 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안 팔금·암태 선착장에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신안 중부권 임시버스 환승장 설치, 암태 오토 페달을 활용한 경관 카페 조성,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등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한 관광 수용태세도 대폭 강화된다.

이런 가운데 서남권 관광활성화 공동 노력을 위해 전라남도도와 목포·신안·무안이 함께 참여해 서남권 관광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갯벌, 해수욕장, 해양레저 등 섬·해양 특화자원과 연계한 도서민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고유 문화자원 조사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무안 국제공항을 활용한 항공·해양 연계 관광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공동 마케팅을 적극 펼친다는 방침이다.

서남권의 매력을 극대화한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암태도~천사대교~목포해상케이블카~고하도 경유상품(섬&섬여행)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신안 세일요트 체험상품(SKY&SEA투어) ▲2019년 말 개통 예정인 무안 해제~영광간 칠산대교 해안일주 관광상품과 어촌 체험마을, 갯벌·염전체험, 해산물 맛집 투어 등 특색 있는 체험상품을 개발해 올 상반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의 광역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는 고속철과 연계한 섬·해양 코스를 늘리고, 봄 여행주간인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섬·해양 코스를 특화해 운영한다.

서남권 관광이슈를 반영한 권역별 실시간 공동상품 개발과 여행사 팸투어, 여행상품 온라인 판매, UCC 관광영상 공모전 등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김명원 전라남도관광문화체육국장은 “신안 천사대교·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맞춰 특화된 여행상품과 이벤트로 전남 서남권을 전 국민이 찾는 섬·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올해가 전남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전략적 관광객 유치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남=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전남도, 녹색축산 확대에 2000억 투입

사육환경 개선·안전축산물 생산 확대 한우 송아지 브랜드 5천마리 선발도

전라남도가 올해 축산업 발전 목표를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실천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정하고, 국비 463억 원 등 총 216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축산물 생산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축산 1번지 실현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 ICT 융복합 등 43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축산업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형 녹색축산기반 확충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고품질 축산물 생산 ▲미래 성장산업 육성 등 4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역점사업으로 한우 송아지 브랜드 5천 마리 선발(2개 시군에서 4개 시군으로 확대), 친환경 축산물 인증 2천

호, 동물 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350호, 깨끗한 축산 농장 500호, 조사료 생산 4만 9천ha,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등을 추진한다.

추진 과제별로 환경친화형 녹색축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913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425억 원, 축산 ICT 융복합 60억 원,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 200억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 37억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21억 원 등 13개 사업 1천736억 원을 지원한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 124억 원, 축산 약취 저감사업 지원 48억 원, 축산농장 약취 저감시설 지원 15억 원,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8억 원 등 5개 사업에 215억 원을 지원한다.

/전남=봉태영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10일 (木) 음력: 12월 5일

수도권 날씨 -6 ~ 4℃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47 | 해질 / 17:32

연천 -11/2, 동두천 -9/4, 가평 -11/3, 파주 -11/4, 서울 -6/4, 양평 -10/3, 인천 -5/4, 수원 -6/3, 용인 -6/3, 평택 -9/4, 백령도 -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남학생교육원 청소년 ‘독서·토론·논술 캠프’

전라남도학생교육원이 ‘청소년! 세계를 품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세계시민 독서·토론·논술 캠프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오는 11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전남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160명이 참여해 세

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력을 기르는 교육을 받는다.

2019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세계시민 캠프는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의 4대 역점과제 가운데 하나인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실천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캠프는 독서와 토론을 통해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목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빈곤, 인권, 환경 등 6가지 주제를 설정해 협력과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기 때문이다. /전남=봉태영 기자